전남도, 총선 출마자들에 '국립의대 신설' 공약 제안

지방소멸 막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대표과제 10개·정책과제 44개 제안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 육성·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대회'에 참석, 주요 내외·빈들과 여성기업인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을 발굴, 제안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제 22대 총선과 관련, 지역 공약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정책과제 44개를 발굴, 총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발굴한 정책과제는 10개 전남도 대표 공약과 34개 분야별 공약으로, 경제산업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SOC 11건 ▲농·수산 5건 ▲복지 환경 4건 ▲관광 문화 4건 ▲기획행정 3건 등으로 나뉜다.

10개 대표 공약에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첫 손에 꼽혔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의사 양성이 불가능해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21년 이뤄진 도민 요구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전남 최우선 해결사업 분야로 '의대 및 부속병원 유치'로 나타났다. 정원 100명 이상의 국립의대 및 상급병원 설립을 위한 추정 사업비는 국비 980억원 규모다.

광양만권을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양만권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약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3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키로 광주시와 서로 '약속'한 명분을 내세워 국내 최대 경쟁력을 갖추고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남권 SOC 확충을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과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대표 공약에 포함됐다. 첨단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제 5차 첨단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전남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반영됐다.

이 밖에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광주~고흥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연장 87.7㎞) 건설(국비 5조 8569억원) ▲목포~남악~오룡 전남형 트램 구축(연장 15.7㎞·국비 2400억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5000억원)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도 대표 공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역공약으로는 경제산업 분야가 ▲우주발사체 산업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국비 2700억원) ▲여수국가산단 탄소포집·활용 클러스터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국비 1조 665억원) ▲영암 대불산단 등 서남권 일대를 조선업 친환경 혁신 기반 구축(국비 867억) 등 17개로 가장 많았다.

SOC 분야 공약으로는 ▲신안 장산~신의, 하의~도초를 잇는 다이아몬드제도 연도교 건설 계획의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동순천 IC~여수 소라면을 잇는 여수~순천(연장 24.0㎞·4차로) 고속도로(국비 1조 9601억원)의 제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이 제안됐다.

농·수산 분야 공약에는 국립수산종자원 유치, 국내·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등이 담겼고, 복지 환경 분야로는 COP33 개최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 국립치매연구소 설립 유치(국비 1000억원) 공약이 제시됐다.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공약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여수·순천 10·19 기념·위령사업 등은 기획행정분야 공약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 현안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 등에게 제공, 전남 도민에 대한 약속 형태로 해당 후보자를 통해 확약받아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권자를 등에 입고 숙원사업으로 제안한 지역공약이지만, 표 쏠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공약 발굴 대신, '붕어빵 공약 남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 100억 돌파

시행 1년 앞두고 고향사랑 열풍…이색 답례품·전략적 홍보 성과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8월 기준 기부금 액수가 73억원으로 전국 최다를 보인 만큼 이는 전국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소멸 위기 속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향우의 애향심을 자극하고, 각종 사업을 창안·발굴해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꾸준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보다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1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지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신설한 전남도는 여수·나주·해남·무안 등 시·군 전담팀과 함께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다른 시·도에 비해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도 주효했다. 전남도는 유명 연예인 등과 함께 '고향사랑 응원 릴레이'를 추진했다.

고흥군, 곡성군은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 중이다. 구례군은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수영구와 누리소통망(SNS) 활용 상호 홍보를 하고 있다. 완도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랜딩 페이지를 제작했다. 강진군은 직원들이 플래시몹을 제작해 TV에 방영되기도 하는 등 톡톡튀는 홍보방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누리집, 누리소통망, 전광판, 용산역·서울역·지하철역을 활용한 홍보, 수도권 대규모 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부자가 전남을 선택한 데는 청정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전달한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제도 시행 1년만에 전남도와 시군이 고향사랑기부금 1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달성하고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43만 명을 모집하는 기염을 토했다"며 "지역소멸 위험으로 적신호가 켜진 전남에 한줄기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기업이 만든 자율주행차 '카모', 육군부대 누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설계·㈜마루이엔지 제작 최대 15인 탑승

계룡대 내 3.26㎞ 구간 정류장 8곳 설치…하루 3회 실증운행

광주지역 기업이 만든 자율주행차량이 계룡대를 누비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에서 만든 자율주행차량 '카모(KAMO·사진)'가 이달부터 계룡대 육군본부 내에서 셔틀 운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와 육군 군수사령부는 이달부터 계룡대 육군본부 내 3.26km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 시범운행 정류장 8개소를 설치하고,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루 3회 자율주행 셔틀 실증운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 '카모(KAMO)'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설계하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지역기업 ㈜마루이엔지가 제작한 셔틀버스로, 10개 좌석에 최대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광주시와 육군 군수사령부는 지난 4월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해 군 보안문제, 경로설정과 정밀지도 구축, 자율주행시스템과 센서 최적화, 운영시나리오 작성 등을 거쳤다.

11월에는 군 담당자 운영교육과 함께 광주 그린카진흥원을 포함해 3자 간 미래 차 육성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관람 30%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존 10%, 12%에서 각각 5%포인트(p) 씩 상향된 것이다. /연합뉴스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탈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자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중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용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당사는 2023년 12월 1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 총액 금1,220,000,000원 중 금85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37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70,000주를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임의소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주로서 이 자본금 감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께서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2일

주식회사 지코코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갯벌타워) 806호
대표이사 정 재 석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12월 4일 임시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신문공고게재 익일부터 2개월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12일

장산과수채소영농조합법인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332
청산인 최 윤 성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